

[특집]

한국 교회에서 교회 학위 수여의 의미*

■
전 영 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교수·신부]

시작하며

제1장 신학교 및 신학대학에 관한 교회 문헌

1. 트렌토 공의회 「개혁 교령」(1563)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온 교회의 열망」(1965)
3.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1970)과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1979)
4. 『사제성소의 선물』(2016)과 교황령 『진리의 기쁨』(2017)

제2장 사회 학위와 교회 학위

1. B.A.·M.A.·Ph.D. in Theology
2. M.Div.
3. Th.M.·S.T.M.
4. S.T.B.·S.T.L.·S.T.D.

제3장 교회 대학(교)

1. 『그리스도교적 지혜』와 『진리의 기쁨』
2. 신학대학 학업 체계
3. 교회 대학(교) 설립 조건
4. 한국에서 교회 대학(교) 설립 여정

끝맺으며

시작하며

우리나라 대학교와 대학원은 주로 미국 고등교육 체계를 받아들여 운영한다. 학교에 입학해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 과정을 통과한 학생들은 학위 과정 수준에 따라서 학사(學士), 석사(碩士), 박사(博士) 학위를 받는다. 대표적인 학위(學位) 중별로

* 이 글은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와 교회법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 관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 학술심포지엄(2019.11.9.)에서 발표한 논문이며, 201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는 학문 분야에 따라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문학 학위와 자연 과학, 사회 과학 및 공학을 공부하는 이(공)학 학위가 있다. 오늘날에는 더욱 세분화된 학문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학위 이름을 사용한다.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학업 완료 후에 받게 되는 학위 이름은 신학사, 신학 석사, 신학 박사이다.

하지만 다양한 학위 이름이 오히려 혼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전통적인 구분에 따라서 인문학 분야에 속하는지 자연 과학 및 사회 과학 분야에 속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학문이라면 문제없지만, 때로는 오늘날 새로 출현한 학문 이름을 차용한 학위 이름은 어느 학문 분야에 속하는 학위인지 알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반해, 영어로 표기한 학위 이름은 다양하게 세분화된 해당 학문이 문학(Arts) 혹은 이(공)학(Science) 학위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준다. 이렇게 영문 학위 표기는 무엇을 얼마만큼 배웠는지에 대한 학문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같은 학문에서 우리말로만 한 가지 이름으로만 번역되는 복수의 영문 학위 표기가 있다. 영문 학위 표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학위 과정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므로, 한 가지로 표기하는 국문 학위 이름은 학위 과정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학문 배경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서 단일하게 표기하는 ‘신학 석사’라는 학위 이름이 영문 표기에서는 대표적으로 ‘Master of Arts in Theology’와 ‘Master of Divinity’가 있다. 물론 두 학위 과정은 학문 분야는 같지만 수업 연한이나 취득 학점수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사회 학위’(civil degree)에서만도 다양한 과정이 있는데, ‘교회 학위’(ecclesiastical degree)까지 고려하면 더욱 다양한 과정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 소논문에서 교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한국 가톨릭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론 논하고자 한다.

제1장 신학교 및 신학대학에 관한 교회 문헌

유럽에서 체계를 갖춘 고등교육기관이 출현한 시점은 중세이다. 중세 유럽 최초의 대학은 1088년에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에서 설립된 볼로냐 대학이다. 볼로냐 대학은 주로 교회법과 일반 사회 시민법을 가르쳤다. 인문학을 위주로 한 최초 대학은 110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파리 대학이다. 파리 대학은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다. 볼로냐와 파리에서 공부하고 영국으로 귀국한 학자들은 1167년에 옥스퍼드 대학과 1209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설립하고 신학, 철학, 법학 및 의학을 가르쳤다. 이와 같은 대학들은 사제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보다는 신앙에 대한 확신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학문으로써의 신학을 연구하는 교육 기관이었다. 하지만 대학 교수 대부분은 성직자였으며, 대학은 신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13세기에 교황청은 이러한 대학들의 교육 과정과 학위의 권위를 교회 내에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제 양성을 목적으로 신학생들만을 위한 신학교 및 신학대학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근세이다.

1. 트렌토 공의회 「개혁 교령」(1563)

16세기 전반에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를 비롯하여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와 칼뱅(Jean Calvin, 1509~1564) 등의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출현하자 가톨릭교회는 전통 교리에 위협을 느끼고 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트렌토 공의회(1545~1563)를 소집하였다. 교황 비오 4세(Pius PP. IV, 재임 1559~1565)때 열린 공의회 제3기(1562~1563), 제23차 회기(1563)에서 신품성사에 관한 참된 가르침을 설명하는 가운데 사제 양성에 관해 수행할 개혁 과제를 다룬 「개혁 교령」(*Decreta super reformatione*)을 공표하였다.

교령은 제18조에서 사제 양성을 담당할 신학교 설립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였다. 즉, 주교는 읽고 쓸 줄 알며 성직에 봉사할 성품과 의지가 있는 소년들을 신학원에 머물게 하면서 교회 학문을 익

하며 종교적으로 양성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소년들은 나이와 학문 습득 정도를 고려하여 편성된 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소년들은 문법, 성가, 교회력 계산법 및 그밖에 유용한 과목들뿐 아니라 성경, 교회 서적, 성인들의 강론 및 성사 집전에 유용한 내용들과 전례 예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신학교 교수들도 성경과 교회법 및 그밖에 가르치는 임무에 적합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나 석박사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¹⁾

주목할 내용은 신학생들을 나이와 학문 진척 정도에 따라 학급을 구분해 가르치라는 것과 자격을 갖춘 자를 신학교 교수로 임명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신학생들은 성경과 교회법 및 교부들과 성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성사 집전에 필요한 전례 예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온 교회의 열망」(1965)

20세기에 가톨릭교회가 현대 상황에 맞게 스스로 혁신하고자 ‘현대화’(aggiornamento)를 내세워 선제적으로 소집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Optatum Totius*)²⁾과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³⁾을 공표하였다. 특히 사제양성교령은 트렌토 공의회 이후 오랜만에 공식적으로 사제 양성을 위한 교회 학문 과정 개편을 시도하였다.

사제양성교령은 먼저 신학교 교수진 선발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교수들은 적절한 교육 과정이 마련된 교육 기관에서 교육 받아 올바른 교리 지식을 지니며 사목 경험도 적절히 했고 교육학적인

1) 참조: G. Alberigo / J. A. Dossetti / P.-P. Joannou(주세페 알베리고 외) 엮음,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트렌토 공의회·제1차 바티칸 공의회』, 김영국·손희송·이경상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3, 750~753쪽.

2) Cf. AAS 58(1966), 713~727.

3) Cf. AAS 58(1966), 991~1024.

소양을 갖추며 영성 생활을 실천하는 뛰어난 인재 중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⁴⁾ 또한 교령은 신학생들도 인문 교양, 철학, 신학 및 전문 분야 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인문 교양에서는 대표적으로 성경 언어들과 라틴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철학 과목들에서는 구원의 신비와 철학적 논증 사이의 관련성을 통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데, 특히 철학사가 유용하다는 것이었다. 신학 과목들에서는 계시 진리를 이해하고 영성 생활에 유익하며 복음 선포 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성경 연구, 교의 신학, 윤리 신학, 교회법, 교회사, 전례 과목이 대표적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갈라진 교회들과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며 사도직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⁵⁾

물론 교령은 신학생들에게 영성 교육⁶⁾과 사목 교육⁷⁾을, 사제들에게 계속 교육⁸⁾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께 강조하였다. 그러나 역시 주목할 내용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었다.

3.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1970)과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1979)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권고에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1970년대에 두 가지 중요 문헌을 발표하였다. 먼저 1970년에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 발표한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Ratio Fundamental Institutionis Sacerdotalis*)⁹⁾은 사제양성교령 1항의 권고에 따라서 지역 교회가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해 ‘국가별 지침’(Ratio Nationalis)을 제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문헌이었다. 다음으

4) 참조: 사제양성교령, 5항.

5) 참조: 사제양성교령, 13~18항.

6) 참조: 사제양성교령, 8~12항.

7) 참조: 사제양성교령, 19~21항.

8) 참조: 사제양성교령, 22항.

9) Cf. AAS 62(1970), 321~384.

로 1979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Ioannes Paulus PP. II, 재임 1978~2005)가 공표한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Sapientia Christiana*)¹⁰⁾는 신학을 비롯하여 교회 학문을 연구하는 교회 대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문헌이었다. 가톨릭교육성도 교황령의 일반 규정 제10조에 따라서 교황령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규칙」(*Ordinationes*)¹¹⁾을 제정하였다.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은 먼저 신학교에서 교수들을 각 학년과 각 과목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교수들은 교회 석사 학위를 취득해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²⁾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은 크게 인문 교육, 철학 교육, 신학 교육의 세 범주로 나뉘는데, 지침서는 인문 교육과 철학 교육이 먼저 선행된 후에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지침서는 적어도 철학 교육을 2년 간, 신학 교육을 4년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³⁾ 철학 교육에서는 전통 철학과 현대 철학 및 철학사를 언급했으며¹⁴⁾, 신학 교육에서는 성경, 전례, 교의, 윤리, 영성, 사목, 사회 교리, 교회사, 교회법 등을 제시하였다.¹⁵⁾

『그리스도교적 지혜』는 보다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교회 대학(교)과 대학원 설립 및 승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물론 대학에서 전공하는 학문으로 신학, 철학, 교회법 이외에도 다양한 학문 분야가 있다. 한 가지 학문 분야만 공부하는 대학을 설립할 수도 있고, 여러 전공 분야를 설치한 대학교도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를 임용할 때에도 교회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학문 연구에 적합한 능력을 지닌 자를 채용해야 한다.¹⁶⁾ 교회 대학은 학과 과정을 끝낸 학생들에게 교회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¹⁷⁾

10) Cf. AAS 71(1979), 469~499.

11) Cf. AAS 71(1979), 500~521.

12) 참조: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 32항, 34항.

13) 참조: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 60~61항.

14) 참조: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 71~72항.

15) 참조: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 78~79항.

16) 참조: 『그리스도교적 지혜』, 제25조.

신학 대학 제1과정에서 학생들은 신학에 필요한 철학 과목들 및 성경, 기초 신학, 교리 신학, 윤리 및 영성 신학, 사목 신학, 전례, 교회사, 교부학, 고고학, 교회법 등을 5년 간 배운 후 제2과정에 등록해 전문화된 학문 분야를 2년 간 배운다.¹⁸⁾ 따라서 보다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교회 대학으로서의 신학 대학은 신학교를 대신해 신학생들이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는 교육 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4. 『사제성소의 선물』(2016)과 교황령 『진리의 기쁨』(2017)

최근 가톨릭교회는 1970년대에 신학교 및 교회 대학(교)에 관해 발표했던 두 문헌들을 개정하였다. 특별한 점은 신학교와 신학생 교육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사제 양성의 지속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 아니라 성직자성이 담당이 되어 『사제성소의 선물』(*The Gift of the Priestly Vocation*)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 문헌은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을 대신하는 개정판이지만, 서술 체계와 관점이 대폭 개선되었다. 이듬해 교황 프란치스코(Franciscus PP., 재임 2013~현재)는 『그리스도교적 지혜』를 대신하는 개정판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¹⁹⁾을 공포하였다. 가톨릭교육성은 여전히 교회 대학에 관한 담당 부서로서 교황령 제10조에 따라서 다시 「적용 규범」(*Ordinationes*)²⁰⁾을 제정하였다.

『사제성소의 선물』은 담당 부서가 바뀐 배경이 반영되었는지 과거 문헌보다 사제 양성에 대해 보다 사목적이고 영성적인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다만 2011년에 가톨릭교육성이 발표했던 『교회 철학 연구의 개편에 관한 교령』(*Decretum super reformatione studiorum ecclesiasticorum Philosophiae*)²¹⁾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신학생들이 공부할 철학 과목 주제들이 더욱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이에 반해

17) 참조: 『그리스도교적 지혜』, 제46-47조.

18) 참조: 「시행 규칙」, 제51~52조.

19) Cf. AAS 110(2018), 1~41.

20) Cf. AAS 110(2018), 137~159.

21) Cf. AAS 103(2011), 145~161.

『진리의 기쁨』은 문헌 구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전의 『그리스도 교적 지혜』와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진리의 기쁨』은 조항 하나 하나에 40여년의 세월에서 교회 교육 현장에 요청되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반영하였다.

제2장 사회 학위와 교회 학위

국가가 인준한 대학과 교회가 인준한 대학은 설립 목적과 교과 운영 방식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두 대학이 수여하려는 학위 취득 조건도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같은 학문 분야를 전공했다라도 사회 학위와 교회 학위를 취득하는 조건은 다르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학 분야 학위의 경우에 가톨릭교회가 인준하는 교회 학위는 한 종류이겠지만, 사회 학위는 학업 조건에 따라서 또 다시 몇 가지 종류로 나뉜다.

1. B.A. · M.A. · Ph.D. in Theology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사회 학위이다.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수업 연한은 학사 과정 4년 이상 및 석사와 박사 과정 각각 2년 이상이다.²²⁾ 이는 미국 학제와 거의 유사한 형태이다.

국내에서 학사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학점²³⁾ 수는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략 120~150학점이다.²⁴⁾ 현재 가톨릭대학교는 학사 과정에서 130학점 이상을 요구한다.²⁵⁾ 석사 및 박사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학점 수는 거의 모든 대학이 동일한데,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총 60학점을 요구한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 학과가

22) 참조: 『고등교육법』, 제31조.

23) 국내 대학 이수 학점제에서 1학점(Credit)은 유럽 대학 이수 학점제에서 대략 1.5학점(ECTS)이다.

24) 미국에서는 학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120학점을 요구한다.

25) 참조: 『가톨릭대학교 학칙』, 제29조.

석사 과정에서 24학점, 박사 과정에서 나머지 36학점을 요구하는데, 현재 신학대학은 석사 과정에서 36학점, 박사 과정에서 나머지 24학점을 요구한다.²⁶⁾

따라서 우리말로 신학사, 신학 석사, 신학 박사라고 표기했더라도 영문으로는 Bachelor of Arts in Theology, Master of Arts in Theology, Doctor of Philosophy in Theology라고 표기해야 하며, 위에서 설명한 수업 연한 내에 해당 이수 학점을 취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M.Div.

역시 우리말로 신학 석사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Master of Divinity 학위는 주로 미국에서 운영하는 학위 과정이며, 국내에서는 몇몇 개신교 신학대학에서 운영한다. 이 학위 과정은 학사 과정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나, 향후에 종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이다. 미국 가톨릭교회는 신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는 충분한 학점 수를 포함한 또 다른 석사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미국 대학에서 이 과정의 수업 연한은 3년 이상이며, 이수 학점은 대략 70~80학점 정도이다. 가톨릭계 대학 중에 대표적인 보스턴 대학 신학대학(Boston College, School of Theology and Ministry)은 3년간 82학점을 요구하며,²⁷⁾ 개신교계 대학 중에 대표적인 예일 대학교 신학대학(Yale University, Divinity School)은 3년 간 72학점을 요구한다.²⁸⁾ 한편 보스턴 대학 신학대학은 이 과정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먼저 학사 과정에서 2년 간 철학을 공부할 것을 추가로 요구한다.

26) 참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②~③.

27) 참조: <https://www.bc.edu/content/bc-web/schools/stm/academics/programs.html>(2019.10.7.).

28) 참조: <https://divinity.yale.edu/academics/degree-and-certificate-requirements/master-divinity-mdiv>(2019.10.7.).

3. Th.M. · S.T.M.

앞에서 살펴본 M.Div. 학위는 신학 석사 학위라고 부르지만, 교회 학위에서 제1과정과 같은 수준의 학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이 박사 학위 과정에 진학하려면 학점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미국 대학들은 중간 과정을 구성하였다. 역시 우리말에서는 신학 석사로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이 학위 과정을 보스턴 대학은 Master of Theology라고 표기²⁹⁾하고 예일 대학교는 Master of Sacred Theology라고 표기³⁰⁾한다.

Th.M. 및 S.T.M. 과정은 선수 조건으로 먼저 M.Div. 학위를 요구하며, 학위 과정 중에 2년 간 24학점을 요구한다. 대학마다 신학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이 과정을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결국 이 과정은 대략 교회 학위 제2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과정들은 교과과목 이외에도 종합시험과 논문(Thesis)을 요구한다. 다만 대학마다 종합시험이나 논문에 평점이나 학점을 부과하기도 하고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4. S.T.B. · S.T.L. · S.T.D.

이 학위들은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준 받은 적이 없었던 교회 학위이다.³¹⁾ 우리말로 교회 신학사, 교회 신학 석사, 교회 신학 박사라고 표기하는 것은 어색하고 보편적이지 않다. 여전히 신학사, 신학 석사, 신학 박사라고 표기해야 할 것이다.

Bachelor in Sacred Theology 과정, 즉 제1신학 과정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신학교에서는 이 학사 학위 과정을 철학 2년에 신학

29) 참조: <https://www.bc.edu/content/bc-web/schools/stm/academics/programs.html>(2019.10.8.).

30) 참조: <https://divinity.yale.edu/academics/degree-and-certificate-requirements/master-sacred-theology-stm>(2019.10.8.).

31)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이 1964~1969년에 한시적으로 우르반 대학교와 신학적 제휴(affiliation)를 맺고 교회 신학 학사 학위(S.T.B.) 과정을 운영했으나, 최종적으로 인준 받지 못하고 이 과정을 포기한 적이 있다.

4년을 합해 수업 연한을 6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다음으로 신학대학에서는 계속해서 석사 과정에 진학하는 것을 전제로 철학 2년에 신학 3년을 합해 수업 연한을 5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로마에 소재한 신학대학에서 제1신학 과정으로 이수할 학점은 대략 195학점(ECTS)이다.³²⁾

Licentiate in Sacred Theology 과정, 즉 제2신학 과정은 수업 연한을 2년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전공 분야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졸업 후에 전 세계 어느 신학교에서든 교수로서 자신의 전공 분야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년간 이수 학점은 졸업논문 30학점과 졸업시험 18~30학점을 포함해 총 120학점(ECTS)이다.³³⁾

Doctorate in Sacred Theology 과정, 즉 제3신학 과정은 수업 연한을 3년 이상으로 운영한다. 로마 소재 신학대학은 일반적으로 같은 신학대학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학위논문만 요구하고, 다른 대학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했거나 전공을 바꾼 학생들에게는 전공 교과과목 10~20학점을 추가로 요구한다. 비록 제3신학 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점이 거의 없는 것 같지만, 세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수는 사회 학위에서 요구하는 학점 수보다 많다.³⁴⁾

그러므로 우리말에서는 단순히 신학사, 신학 석사, 신학 박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학위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서양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으로 표기한 학위 이름을 접한다면 그 학위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학위의 학문 배경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32) 우르반 대학교 신학대학은 교과과목 195학점 이외에, 학점 없이 종합시험과 졸업논문을 요구하며, 그레고리안 대학교 신학대학은 교과과목 이외에, 졸업논문 6학점을 포함해 194학점을 요구한다.

33) 우르반 대학교는 교과과목 72학점, 졸업시험 18학점, 졸업논문 30학점으로 배분하였고, 그레고리안 대학교는 교과과목 60학점, 졸업시험 30학점, 졸업논문 30학점으로 배분하였다.

34) 졸업시험이나 졸업논문을 제외하고도 교회 학위 과정에서는 총 360학점(ECTS)을 이수하는데 미국 학점으로 환산하면 240학점이고, 사회 학위 과정에서는 총 200학점을 이수한다.

제3장 교회 대학(교)

1. 『그리스도교적 지혜』와 『진리의 기쁨』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는 머리말에서 대학 설립에 대한 교회의 역사와 역할을 간단하게 성찰하였다. 중세 유럽에서 세속 대학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가톨릭교회는 주교좌 성당 내이나 수도원 근처에 학교를 세워 사람들에게 교회 교리뿐 아니라 교양 과목까지 함께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 환경의 배경 속에서 중세에 각 나라는 독자적으로 대학을 설립해 세속 학문을 가르치면서 인류 문화를 발전시켰다.³⁵⁾

오늘날 세속 대학 체제를 적용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가톨릭계 대학교는 또 한편으로 여전히 교회의 복음 선포와 선교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 대학과 대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책무를 지닌다. 이런 교회 대학과 대학교는 성직자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복음화 사명을 일깨운다.³⁶⁾ 결국 『그리스도교적 지혜』는 일반 대학과 대학교가 설립되어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교회 대학과 대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넘어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를 강조하였다.³⁷⁾ 한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0년에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Ex Corde Ecclesiae*)³⁸⁾를 공표하면서 교회가 설립하는 일반 가톨릭계 대학교가 어떤 취지와 목적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였다.

교황령 『진리의 기쁨』은 머리말에서 이전의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를 대신할 문헌을 발표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교적 지혜』의 가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난 40여 년 동안 대학 교육에 대해 발표된 교회 문헌에 담긴 규범 조항들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³⁹⁾ 게다가 일반 대학으

35) 참조: 『그리스도교적 지혜』, 머리말 II.

36) 참조: 『그리스도교적 지혜』, 머리말 III.

37) 참조: 『그리스도교적 지혜』, 머리말 V.

38) Cf. *AAS* 82(1990), 1475~1509.

로서의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규범은 『교회의 심장부』에서 강조되었으므로, 『진리의 기쁨』은 교회 대학의 규범을 더욱 강조하였다. 특히 교회 학문이 교회가 선교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성찰하였다. 즉, 복음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게 영적으로 안내하는 관상,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기쁨을 체험하며 나누는 대화, 계시의 빛을 다루는 교회 학문이 문화적, 인도적으로 타 학문에 다가가는 복합, 교차 학문간 접근 방식, 그리고 교회 학문 육성과 축진을 위한 전 세계 기관들과의 관계망 구축 시도 등이 새롭게 개선된 기준이라는 것이다.⁴⁰⁾

과거 『그리스도교적 지혜』가 현실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교리를 가르쳐야 했다면, 오늘날 『진리의 기쁨』은 더 복잡해진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 더욱 역동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학문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¹⁾ 『진리의 기쁨』은 『그리스도교적 지혜』가 제시한 일반 규범들과 특별 규범들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규범들을 세심하게 첨가함으로써 교황령을 더욱 구체화시켜 풍요롭게 만들었다.

2. 신학대학 학업 체계

먼저 교황령 『진리의 기쁨』은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 대해서 정의 하였다. 즉, 교회 대학교와 대학은 사도좌가 교회법에 따라서 직접 설립하거나 일정 조건을 갖추어 승인받은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회 대학(교)은 거룩한 교리 및 그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학업을 끝마친 자에게 성좌의 권위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⁴²⁾ 교회 대학교 내에는 계시 진리에서 깨달은 가톨릭 교리를 학문 방법론에 따라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신

39) 참조: 『진리의 기쁨』, 머리말 1.

40) 참조: 『진리의 기쁨』, 머리말 4.

41) 참조: 『진리의 기쁨』, 머리말 5.

42) 참조: 『진리의 기쁨』, 제2조 ②.

학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⁴³⁾

신학대학은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5년제 수업 연한의 제1과정을 마련해서 앞선 2년 동안 먼저 철학을 공부하여 이후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도록 구성해야 한다.⁴⁴⁾ 철학 과정에서 배워야 할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즉, 철학 개론과 철학사 및 존재 철학과 자연 신학으로 구성된 형이상학, 그리고 자연 철학, 인간 철학, 윤리 철학, 정치 철학, 논리학, 인식론 등이다.⁴⁵⁾ 그리고 신학 과정에서 배워야 할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즉, 성경 입문과 주석, 교회 일치 및 비그리스도교 종교와 무신론 및 현대 문화 사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기초 신학, 교의 신학, 윤리 신학, 영성 신학, 사목 신학, 그리고 전례, 교회사 교부학, 고고학, 교회법 등이다.⁴⁶⁾ 특히, 교황령은 제1과정 초기 2년에 철학 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심지어 비교회 대학(교)에서 철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도 신학 연구 관점에서 철학을 바라보는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해야만 철학 과목들이 신학 연구에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⁷⁾

한편 교황령은 신학대학이 사제 양성 기관의 역할도 겸해야 할 때에 필요한 점들을 강조하였다. 즉, 신학대학은 사제 양성이란 특별한 의무에 관심을 둘 일정 수의 사제 교수를 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1과정 이후에 사제직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사목의 해’를 설치하고 별개의 졸업 증서도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⁸⁾ 아울러 신학대학은 일반 대신학교를 졸업한 자의 제2과정 입학에 대해서도 입학 조건을 마련해 선발할 수 있다.⁴⁹⁾

43) 참조: 『진리의 기쁨』, 제69조.

44) 참조: 『진리의 기쁨』, 제74조 가).

45) 참조: 『진리의 기쁨』, 「적용 규범」, 제55조 1. 가).

46) 참조: 『진리의 기쁨』, 「적용 규범」, 제55조 1. 나).

47) 참조: 『진리의 기쁨』, 제74조 가); 「적용 규범」, 제55조 1. 가).

48) 참조: 『진리의 기쁨』, 제76조.

49) 참조: 『진리의 기쁨』, 「적용 규범」, 제59조.

3. 교회 대학(교) 설립 조건

무엇보다도 교회 대학은 일정 수의 영구직 교수를 임용해야 한다. 영구직 교수의 수는 전공 대학 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신학대학에서는 철학 과정을 담당할 최소한 3명의 교수와 신학 과정을 담당할 최소한 12명의 교수를 두어야 한다. 신학 과정에서는 전공 분야 별로 또 다시 최소 필요 교수가 있는데, 성경 2명, 기초 신학과 교의 신학 3명, 윤리 신학과 영성 신학 2명, 전례 1명, 교회법 1명, 교부학 1명, 교회사 1명, 사목 신학 1명이다.⁵⁰⁾ 그리고 철학 대학에서는 최소한 7명, 교회법 대학에서는 5명, 종교학 대학에서는 4~5명, 기타 전공 대학에서는 5명의 영구직 교수가 있어야 한다.⁵¹⁾

게다가 신학대학과 교회법 대학에서 영구직 교수로 임용되려는 자는 교회법적 박사 학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만약 사회법적 박사 학위를 지닌 자는 최소한 교회법적 석사 학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⁵²⁾ 기타 전공 대학에서는 사회법적 박사 학위를 가진 자를 임용할 수 있으나, 대상자가 교회 대학에서 가르칠 자질을 지녔다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⁵³⁾

한편 교회 대학교(Universitas)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대학교 내에 최소한 4개의 단과 교회 대학(Facultas)이 설치되어야 한다. 만약 3개의 단과 교회 대학만 설치된 교회 대학교는 Athenaeum이라고 불린다.⁵⁴⁾ 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는 교회법 대학이 승인을 받았고, 신학대학이 승인 절차 중이다. 따라서 본교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 대학으로서의 철학 대학이 교회 대학으로 승인받는다면, 가톨릭대학교는 교회 대학교(Athenaeum)의 지위를 얻게 되고, 또 다른 교회 대학의 승인을 시도한다면 교회 대학교(Universitas)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50) Cf. *Normae De Instituti Theologici Aggregatione*, 7. c), note 2.

51) 참조: 『진리의 기쁨』, 「적용 규범」, 제18조 ②.

52) 참조: 『진리의 기쁨』, 「적용 규범」, 제19조 ②.

53) 참조: 『진리의 기쁨』, 「적용 규범」, 제19조 ③.

54) 참조: 『진리의 기쁨』, 제62조 ②.

4. 한국에서 교회 대학(교) 설립 여정

한국 가톨릭교회는 교계 설립 초기부터 사제 양성을 위하여 신학 교육에 전념하였다. 1784년에 평신도 스스로 신앙을 들여왔던 조선에 1831년에 조선 대목구가 설립되었다. 1836년에 첫 번째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해 1855년에 첫 번째 신학교인 ‘성요셉 신학교’를 충북 배론에 설립하였다. 이후 강원도 부영골을 거쳐 1887년에 서울 용산으로 옮겨졌던 ‘예수성심 신학교’는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 기관이라는 이유로 1942년에 폐교되었다. 1945년에 현 소재지인 서울 혜화동에서 서울 교구는 다시 정부 인가를 받아 ‘경성천주공교 신학교’를 설립했으며, 1947년에 소신학교와 분리한 대신학교를 ‘성신 대학’으로 승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 정부 인가를 받았으며,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가톨릭대학교’의 위상을 확립하였다.⁵⁵⁾ 따라서 첫 신학교 설립부터 고려하면 올해가 개교 164주년이고, 정식 대학 설립부터 고려하면 72주년이다. 가톨릭 신앙 전래 235주년 및 교계 설정 188주년과 비교한다면 한국 교회는 일찍부터 사제 양성에 매진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정부 인가를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위상을 갖고 신학대학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대학 체제에서 본다면,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은 한국 사회에서 학문적으로 오랜 전통과 경험을 갖춘 대학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 대학이라는 위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본교는 그동안 유럽 가톨릭교회에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신학대학에 불과하였다. 반대로, 한국 사회도 교회 대학이라는 위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육부도 교회 대학인 교황청립 대학교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에서 취득한 교회 학위 취득을 인정받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⁵⁶⁾ 한국 가톨릭교회가 1990년대에 유럽

55) 참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 편찬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 1855-2005』, 기쁜소식, 2007, 93-377쪽.

56)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교육부에 신고해야 한다. 참조: 『고등교육법』, 제27조(외국박사 학위의 신고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외국박사 학위의 신고).

소재 교황청립 대학교 목록을 교육부에 제출해 인정받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본교는 교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1960년대에 한 차례 시도하였다. 1964년에 로마 우르반 대학교와 신학적 제휴(affiliation)를 맺고 6년제 대신학교로서 교회 신학사를 수여하고자 노력했으나, 정확한 이유가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1969년에 제휴를 해지하였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교회 대학 설립을 다시 추진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2008년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에 서한을 보내서 7개 한국 대신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교회법적 인준을 요청하였다.⁵⁷⁾ 결국 2013년에 가톨릭교육성은 주교회의에 서한을 보내서 서울 소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이 우선적으로 제1신학 과정에 대한 교회법적 인준 절차를 시작하라고 제안하였다.⁵⁸⁾ 이에 본 신학대학은 2015년에 주교회의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제1신학 과정에 필요한 문서들을 가톨릭교육성에 제출하였다.⁵⁹⁾ 제출된 문서들을 검토한 가톨릭교육성은 2016년에 서한을 통해 기존 교회 대학교와 신학적 제휴를 맺고 본 신학대학의 교회법적인 인준 절차를 진행하라고 최종적으로 제안하였다.⁶⁰⁾ 따라서 본교는 2017년 2월에 산토토마스대학교를 방문하고 신학적 제휴를 요청했으며, 2018년 12월에 제1신학 과정과 제2신학 과정에 필요한 문서들을 제출하고 지금까지 가톨릭교육성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끝맺으며

한국의 신학대학이 교회 대학의 위상을 가지려는 이유 중에 하

57) 참조: 2008년 11월 11일자 주교회의 공문 Prot. N. 137/2008.

58) 참조: 2013년 11월 19일자 가톨릭교육성 공문 Prot. N. 51/2009.

59) 참조: 2015년 5월 15일자 주교회의 공문 Prot. N. 114/2015와 2015년 11월 2일자 주교회의 공문 Prot. N. 205/2015.

60) 참조: 2016년 7월 28일자 가톨릭교육성 공문 Prot. N. 576/2013; 51/2009.

나는 유럽 가톨릭교회 내에 저평가 되어있는 본교의 위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유럽 소재 교회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던 사제들은 국내에서 6~7년간의 학업을 통해 사회 석사 학위까지 취득했더라도, 교회 학위 제1과정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교회 학위 제2과정에 입학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충분히 체계적인 운영을 하는 본교의 학업 과정에 대해 교회법적 인준을 받음으로써, 유럽의 교회 대학에 우리 대학의 학문적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한다.

한편 본교는 교회 학위 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신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을 심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내 대학은 미국 교육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신학 전공 분야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부분만 깊게 연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교회 대학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일부분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의 모두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런 목적으로 설계된 과정을 통해 교회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들은 충분한 수업 연한과 세심하게 마련된 교과과목에 따른 충분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은 아시아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가톨릭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어려운 박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성장하면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교회와 세계 교회에게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현재 국내 모든 신학대학에 여러 명의 외국인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만약 아시아 지역에서 유학을 온 신학생들이 한국의 신학대학에서 교회 학위 과정을 공부하고 귀국한다면, 그들은 본국 교회에 유용할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회 신학생들도 교회 학위 과정을 마치고 선교지로 파견된다면, 그들이 말

게 될 역할이 훨씬 다양해질 것이고 그 지역 교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여러모로 유용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교회 학위 과정이 아직까지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본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교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고 문헌]

1. 교회 문헌

-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²2002, 829~873쪽; *AAS* 58(1966), 713~727.
-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²2002, 829~873쪽; *AAS* 58(1966), 991~1024.
- Franciscus PP.(교황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 관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58(201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1~75쪽; *AAS* 110(2018), 1~41.
- Ioannes Paulus PP. II(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교회의 심장부」”, 『회보』 63(1990/1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8~72쪽; *AAS* 82(1990), 1475~1509.
-
- _____, “교회 대학 및 대학교에 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 『사제양성: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639~672쪽; *AAS* 71(1979), 469~499.
- 가톨릭교육성,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의 올바른 실시를 위해 가톨릭 교육성성이 제정한 시행 규칙”, 『사제양성: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673~693쪽; *AAS* 71(1979), 500~521.
-
- _____, “교황령 「진리의 기쁨」의 올바른 이행을 위한 가톨릭교육성의 적용 규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8(201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303~333쪽; *AAS* 110(2018), 137~159.
-
- _____, “교회 철학 연구의 개편에 관한 교령”,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44(20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77~98쪽; *AAS* 103(2011), 145~161.
-
- _____,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 『사제양성: 신학생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31~123쪽; *AAS* 62(1970), 321~384.
- 성직자성, 『사제성소의 선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2. 단행본

- Alberigo, G. / Dossetti, J.A. / Joannou, P.-P.(주세페 알베리고 외) 엮음,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 트렌토 공의회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김영국 · 손희송 · 이경상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3.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 편찬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 1855~2005』, 기쁜소식, 2007.

3. 기타

- Normae De Instituti Theologici Aggregatione.*
-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10.24.
- 법률, 『고등교육법』, 시행 2019.10.24.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2019.1.13.
- 『가톨릭대학교 학칙』, 개정 2019.4.16.
- 가톨릭교육성 공문 Prot. N. 51/2009(2013.11.19.).
- 가톨릭교육성 공문 Prot. N. 576/2013; 51/2009(2016.7.28.).
- 주교회의 공문 Prot. N. 114/2015(2015.5.15.).
- 주교회의 공문 Prot. N. 137/2008(2008.11.11.).
- 주교회의 공문 Prot. N. 205/2015(2015.11.2.).

4. 인터넷 검색

- <https://www.bc.edu/content/bc-web/schools/stm/academics/programs.html>(2019.10.7.).
- <https://divinity.yale.edu/academics/degree-and-certificate-requirements/master-divinity-mdiv>(2019.10.7.).
- <https://www.bc.edu/content/bc-web/schools/stm/academics/programs.html>(2019.10.8.).
- <https://divinity.yale.edu/academics/degree-and-certificate-requirements/master-sacred-theology-stm>(2019.10.8.).

국문초록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치는 학생들은 학위 과정에 따라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보통 미국 교육 체계를 따라 ‘사회 학위’(civil degree)를 수여하는데, 학위 종류에 따라서 어느 분야의 학문을 어느 기간 동안 몇 학점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교육 배경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사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가 하면, ‘교회 학위’(ecclesiastical degree)를 취득할 수도 있다.

가톨릭교회는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1970, 1985)과 그 개정판인 『사제성소의 선물』(2016)을 통해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사제 양성 기간에 배워야 할 과목과 기간과 학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교적 지혜』(1979)와 그 개정판인 『진리의 기쁨』(2017)을 통해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교회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배워야 할 과목과 기간과 학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신학 석사’는 학부에서 같은 전공인 ‘신학사’를 취득한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해 얻는 학위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보통 ‘Master of Arts in Theology’에 해당하는 사회 학위이다. 이외에도 학생의 교육 배경에 따라서 ‘Master of Divinity’ ‘Master of Theology’ 혹은 ‘Master of Sacred Theology’라는 사회 학위도 있다. 교회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학생이 취득하는 ‘Licentiate in Sacred Theology’라는 교회 학위가 있다. 언급된 학위들은 우리말로 신학 석사로 단일하게 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문 약어도 함께 표시해야 학생의 교육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교회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교회 대학(교)을 설립해야 한다. 교회 대학 설립은 조건을 충족했을 때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 인준해 준다. 교육 기간, 교과과목, 자격을 갖춘 교수 충원 등이 중요한 조건들이다. 한국 사회 못지않게 한국 가톨릭교회도 일찍부터

신학교 설립과 사제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모든 대신학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사회 고등교육기관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신학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교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교회 신학대학의 설립은 우리나라 신학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시아 교회의 신학도들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제어: 사회 학위, 교회 학위, 고등교육기관, 교회 대학, 교회 대학교, 대신학교.